

서울지역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연구

이민선 · 이윤정*[†] · 문희강** · 이에영*

상명대학교 의류학과,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Career Decision Level of Clothing and Textile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Min Sun Lee · Yoon-Jung Lee*[†] · Hee-Kang Moon** · Yhe-You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 Sangmyung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ai Chai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0월 5일), 수정일(2010년 11월 2일), 게재확정일(2010년 11월 19일)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lothing and Textile major college students in Seoul area. With the increasing rates of youth unemployment, preparing college students for their future career and guiding them in making career decision is imperativ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motivation orientation were considered as influencing factors, as well as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survey was conducted to 282 students majoring Clothing and Textiles at seven universities and 277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questionnaire measured respondents' major satisfaction, motivational orientation, career decision level, and demographics (gender, age, school and department names, class standing, expected graduation date, subjective social status, and GPA). Descriptive statistics, K-means cluster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ollowed by Duncan multiple comparisons were condu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Clothing and Textiles majors were overall satisfied with their major, but the satisfaction level was higher for female than male students. Those who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 were less likely to feel anxious about career decision-making. The *High-Motivation* group and the *Intrinsic-Motivation* group showed lower anxiety over career decision-making compared to *Low-Motivation* and *Extrinsic-Motivation* groups.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college advisors in that it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and the influencing factors.

Key words: Career development level, Satisfaction with major, Motivational orientation,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진로결정수준, 전공 만족도, 동기성향,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I. 서 론

1980년대 이후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 인력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존재하던 진로교

육의 내용을 각 교과에서 강조하는 등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여전히 부실했던 시기에 대학에 진학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최동선, 정철영, 2003). 특히 자신의 적성과 흥미보다는 사회적 인식 또는 입시 성적에 맞춘 전공 선택으로 인하여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Corresponding author

E-mail: yleehe@korea.ac.kr

고민하기도 한다.

진로발달은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지지만(오치선, 이복희, 2005), 대학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이 임박한 시기이므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Brown et al., 1999),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은 가장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이재창 외, 2007). 특히 산업구조상의 변화 및 교육수준의 전반적 향상,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신규대졸자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들이 미래에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과 진로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 기회를 부여하고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불황으로 2010년 2월에는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하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청년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회의 또는 무기력감 등의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대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용학, 경호학, 호텔관광경영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효과적인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었으나(강영숙, 이은정, 2006; 김명주, 2009; 김창호, 2008; 이형룡, 박슬기, 2010), 의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거의 없다. 의류학은 특히 다양한 학제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학생들의 경우에 의류학 분야의 특정 직업 또는 세부영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진로지도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진로결정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전공 만족도를 진로결정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강영숙, 이은정, 2006; 김창호, 2008; 이형룡, 박슬기, 2010), 진로에 대한 결정수준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고향자, 1992). 대학에서의 전공은 중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을 파악하고 진로지도를 돕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그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

구들에 의하면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도 진로결정 또는 진로탐색행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며, 주로 동기성향, 목적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성장 주도성, 대처양식 등의 성격과 동기와 관련된 변인들이 연관 변수들로 제시되고 있다(이형룡, 박슬기, 2010).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상황적 요소와 개인적 요소가 결합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전공 만족도와 함께 개인의 성격적 성향인 동기성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전공 만족도와 동기성향 및 개인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진로지도 및 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결정수준(Career Decision Level)

진로결정수준이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하는데(김상진, 김종걸, 2007), 즉,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현재 상태 이후에 직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결정은 전공 선택에 대하여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또는 졸업 후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 분야를 선택하였는가를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온 학자들 간에는 진로결정을 종결과 완성의 상태라기 보다는 발전과 과정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봉환, 1997; Browne, 2005; Super, 1984). 즉, 진로는 생애를 통하여 발달하는 것이며 진로결정은 여러 단계의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Harren, 1979). 청년기는 자신의 미래의 직업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시기로(Super, 1984), 성숙한 사람의 경우 진로를 위한 준비 정도가 높고, 건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직업을 선택하며, 직업을 선택할 적절한 연령에 직업선택 능력을 가지게 된다(Savickas, 1984).

진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즉 진로 미결정의 상태는 진로선택에 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유발하며, 진로준비를 위한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다(Germeijs & De Boeck, 2003). 개인의 진로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Germeijs and De Boeck(2003)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정보의 부

족, 가치관의 문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3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최동선, 정철영(2003)은 진로 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로 결정과 관련된 행동 및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 전공 만족도(Major Satisfaction)

전공 만족도란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소속한 전공 학과를 다른 대안적 전공들과 비교한 인지적인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다(이형룡, 박슬기, 2010; Logue et al., 2007).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성별, 학업성적, 적성, 지능, 재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부모나 교사의 영향, 사회계층배경, 교육제도, 산업구조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가 높고(이경아 외, 2004; Guan et al., 2006),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dwards & Waters, 1982; Tyler & Small, 1990).

이처럼 전공 만족도가 학생들의 대학생활의 효율적 수행을 돕는 효과가 있으므로, 학과의 효율성과 교육과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공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있다(이형룡, 박슬기, 2010; 전은경 외, 2001; Graunke & Woosley, 2005; Nauta, 2007; Shim & Morgan, 1990). 국내 의류학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조사한 전은경 외(2001)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대한 적성 및 흥미, 취업률, 학과의 설비 및 시설, 사회적 유대감, 학과활동에의 참여 등이 전공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서울지역의 학생들보다 비서울지역 학생들이, 고학년보다 저학년이 높은 전공 만족도를 보였다.

대학에서의 전공은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대학생들의 진로 의식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임용수, 1993).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진로를 설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이형룡, 박슬기, 2010), 따라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진로결정의 주요한 예측요인이 되며(강영숙, 이은정, 2006),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장선철, 2003) 또는 대학생활에의 적응(Kenny & Rice, 1995)이 진로결정수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3. 동기성향: 내재적 vs. 외재적 동기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자신 및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동선, 정철영(2003)은 이러한 진로탐색활동은 단순히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동기적인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황매향, 임은미(2004)는 진로결정수준과 관련되는 개념인 진로성숙이 학업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개인의 동기성향은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최동선, 정철영, 2003),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자기결정성과 효능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는 개인에게 내재적인 또는 자율적인 동기를 유발시킨다. Amabile(1983)은 외적인 보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재적 동기 과제에 임할 때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내재적 동기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기주도적이며 도전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에 비하여 외재적 동기성향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지시 등에 의해 통제를 받기 원하거나 금전 또는 성적 등의 보상을 기대하는 성향이 커서 타인의 시각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동기성향이 진로탐색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율적 동기를 가진 경우, 보다 적극적인 진로탐색행동을 하며(Blustein, 1988) 진로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임은미, 2004). 이에 비하여 내재적, 외재적 동기수준이 모두 낮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비인격적인 외적 요소에 귀인시키는 성향을 보이는 무동기의 학생들은 낮은 진로성숙도를 보였다(황매향, 임은미, 2004).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의 의류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에 기초가 될 자료를 제시하기 위하여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결정경향을 알아보고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고찰의 결과 전공 만족

도와 개인적 성격요인인 동기성향을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성별, 전공, 학년, 생활수준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효과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 결정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H1.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는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의 동기성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09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서울시내의 7개 대학의 의류학 관련 학과에 재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다. 조사대상 대학의 학과명은 패션디자인학과, 의류학과, 의상디자인학과 등 다양하였으나 대체적인 커리큘럼 등은 유사하였다. 회수된 총 282개의 응답 중 불완전한 응답을 제외한 277개의 응답이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의류학 관련 강좌의 교수 또는 강사들을 통하여 수업 중에 이루어졌다.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저학년보다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여겨 주로 3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강좌를 선택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나, 응답자 중에는 2학년 학생들도 일부(6.2%) 포함되었다. 또한 의류학의 학문적 특성으로 인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92.8%로 남학생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많았다. 본 연구의 주요변수인 동기성향의 경우 성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은 동기성향 자체보다는 동기성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실제로 의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성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 표본은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많은 학생들이(82.6%)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상층 또는 중하층으로 분류하였으며,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3학기 이내에 졸업을 예정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특성이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3. 측정도구

설문지에는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 동기성향,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업 및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포함되었다. 전공 만족도 문항은 하혜숙(1999)이 나동진(하혜숙에서 재인용, 1999)이 변안한 일리노이대학교 학과평가설문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토대로 구성된 34개의 문항 중 전공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일반적 관심에 따른 만족’ 하위요인과 전공의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을 측정하는 ‘학과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따른 만족’의 하위요인 등 본 연구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요인에 대한 13개 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 척도는 Osipow et al.(고향자에서 재인용, 1992)의 척도를 고향자(1992)가 변안한 문항 중 개방형 문항을 제외한 1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진로결정과 관련한 확신부족, 정보 필요성 지각, 긍정적 갈등, 내외적 갈등 등의 하위영역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강영숙, 이은정, 2006; 고향자, 1992; 김봉환, 1997; 이성식, 2006)이 원 척도개발자의 조언에 따라 18개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성 별	남	20	7.2	주관적 생활수준	상	40	14.8
	여	256	92.8		중상	167	61.6
	계	276	100.0		중하	57	21.0
학 년	2학년	17	6.2		하	7	2.6
	3학년	187	68.0		계	271	100.0
	4학년	71	25.8				
	계	275	100.0				

원 척도는 진로에 대한 갈등 또는 진로결정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나타내나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역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동기성향의 측정을 위해서는 Amabile et al.(1994)이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대학생들과 성인을 대상으로 동기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한 작업선호검사(Work Preference Inventory)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문항의 정확성과 명료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이중언어사용자들이 번역-재번역하는 과정을 거쳐 문항을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수준, 전공 만족도, 동기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의 하위척도들의 신뢰도값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다른 하위척도들의 경우 원척도의 문항들을 사용했을 때 대체로 .70 이상의 적절한 신뢰도값을 보였으나 동기성향 중 타인지향성의 경우 10개의 모든 문항을 사용한 경우 신뢰도가 낮았으므로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3개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만을 이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학교 및 학과명, 학년 및 등록학기수, 예상졸업시기, 생활수준, 거주지, 평점 평균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결정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직업을 자유기술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1~3개의 직업을 나열하였으며, 이렇게 자유기

술된 응답은 2명의 대학생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분류된 결과를 제 1연구자가 확인하여 확정하였다. 우선 응답을 크게 패션 관련 직종과 비관련 직종으로 나누었고, 패션 관련 직종은 응답수가 많은 직종 위주로 디자이너, 머천다이저, 바이어, 패션저널리스트/에디터, 스타일리스트, 모델리스트/패터너, 패션마케터 등의 9개 세부직종으로 다시 나누었다. 패션 관련 직종 중 3명 이하의 응답을 얻은 직종들은 패션 관련 기타 직종으로 분류하였다.

4. 분석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2.0을 활용하였다. 진로결정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사후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진로결정경향(기술통계분석 결과)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의 평균은 4점 척도에 2.86, 표준편차는 0.60이었다(표 3).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표 2> 척도의 신뢰도

변수명	하위요인	예시 문항	문항수	신뢰도(alpha)
진로결정수준	(단일요인)	- 나는 ___이(가) 되고 싶지만,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당장 진로결정이 어렵다. 나와 그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직업을 발견하고 싶다. (R)	18	.90
		- 나는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R)		
전공 만족	일반적 내용	- 우리 학과(학부)의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낀다. - 나는 우리 학과(학부)에서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낀다.	5	.87
	사회적 인식	-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속한 학과(학부)에 오고 싶어 할 것이다. - 우리 학과를 졸업했다는 배경이 사회생활에 유리할 것이다.	8	.83
동기성향	내재적동기-도전감	- 예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을 즐긴다. - 내가 내 일을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한다.	7	.74
	내재적동기-즐거움	-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는 느낌을 가지면 만족한다. - 다른 모든 일을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게 하는 일을 좋아한다.	8	.78
	외재적동기-보상	- 나는 성적에 대해 내가 세운 목표에 대하여 민감하다. - 내가 즐기는 일을 하는 한 나는 성적이나 보상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R)	5	.81
	외재적동기-타인지향	-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느낀다.	7	.69

R: 역점수 문항

<표 3> 전공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평 균	표준편차
전공 만족도	일반적 관심	1.20	4.00	3.22	0.55
	사회적 인식	1.50	4.00	3.19	0.49
진로결정수준		1.23	4.00	2.86	0.60

진로결정수준보다 높은 편이어서 일반적 관심에 따른 내용에 대한 만족은 4점 척도에 3.22이었으며, 사회적 인식 면에서의 만족은 3.19로 일반적 관심보다 약간 낮았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의 경우 사용한 척도가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우나 진로결정수준이나 전공 만족도 모두 다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높은 편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종을 모두 열거하게 한 결과 아래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1~2개의 직종을 적었으나 3개까지 열거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을 얻은 직종이 패션머천다이어지였으며(n=99, 39.4%), 두 번째가 패션디자이너(n=86, 34.3%)였다. 그 외에 바이어, 패션저널리스트 또는 에디터가 각 20명, 21명(각 8.0%, 8.4%), VMD와 패션마케터가 각 15명(각 6.0%), 모델리스트/패턴메이커와 대학원 진학이 각각 13명(5.2%), 스타일리스트/코디네이터가 6명(2.4%)이었으며, 패션 관련 기타 직종이 37명(14.7%)이었다. 패션 관련 기타 직종

에는 1~2명이 응답한 직종이 포함되었는데, 패션홍보 전문업체(n=3), 백화점 매니저(n=2), 액세서리 디자이너(n=2) 외에, 개인의류사업, 샵마스터, 퍼스널쇼퍼, 뷰티, 의류쇼핑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의 직종이 언급되었으며, 특별한 직종을 언급하지 않고 의류업계 취업을 원한다는 일반적인 응답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공 위주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종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성별 및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여학생과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인식과 관련된 만족도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었고, 학년별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여학생의 경우보다 높았던 선행연구(전은경 외, 2001)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관심 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사회적 인식에서는 남학생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척도 및 표본의 차이로 해석되며 선행연구가 거의 10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라는 점에서 시간적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회적 인식에서 남학생이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의류학이 가정학에서 발전한 학문으로 사회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으로 성전형화된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남학생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다른 전공들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진로결정수준 면에서도 남학생들의 평균이 여학생들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년이나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전공 만족도나 진로결정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강영숙, 이은정, 2006; 김명주, 2009; 전은경 외, 2001)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앞으로의 진로로서 패션 비관련 직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패션 관련 직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유의하게 낮았다(표 5).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이 낮은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대안적 진로를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

<표 4>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이 고려하고 있는 직종 (복수응답)

직 종	응답자수(n)	총 응답자 중 비율(%)
패션디자이너	86	34.3
패션머천다이어지	99	39.4
바이어	20	8.0
저널리스트/에디터	21	8.4
패션마케터	15	6.0
VMD	15	6.0
모델리스트	13	5.2
대학원 진학	13	5.2
스타일리스트/코디네이터	6	2.4
패션 관련 기타 직종	37	14.7
패션 비관련 직종	36	14.3
합 계	361	143.8 ^a
무응답	26	

^a복수응답이므로 총 응답자 중 비율의 합계는 100%보다 크다.

<표 5> 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평균비교

특 성	구 분	n	전공 만족도		진로결정수준 평균(표준편차)
			일반적관심 평균(표준편차)	사회적 인식 평균(표준편차)	
성 별	여학생	254	3.22(.56)	3.21(.48)	2.86(.60)
	남학생	20	3.20(.52)	2.98(.61)	2.90(.69)
	<i>t</i>		0.17	1.99*	0.27
학 년	2학년	17	3.05(.74)	3.18(.45)	2.91(.67)
	3학년	186	3.25(.52)	3.22(.49)	2.84(.59)
	4학년	71	3.18(.56)	3.13(.51)	2.90(.63)
	<i>F</i>		1.35	0.91	0.30
주관적 생활수준	하	40	3.23(.51)	3.32(.44)	2.86(.65)
	중하	166	3.21(.54)	3.15(.48)	2.87(.59)
	중상	57	3.23(.62)	3.19(.55)	2.84(.61)
	상	7	3.09(.55)	3.18(.44)	2.77(.60)
	<i>F</i>		0.16	1.32	0.08
고려직종	패션직종	215	3.31(.50)	3.25(.46)	2.92(.68)
	비패션직종	36	2.83(.59)	2.91(.57)	2.69(.60)
	<i>t</i>		5.19***	3.97***	2.11*

* $p < .05$, *** $p < .001$

<표 6> 동기성향의 군집분석 결과(집단 평균)

동기성향	군 집	고 동기 집단 (n=63)	외재적 동기 집단 (n=71)	내재적 동기 집단 (n=81)	저 동기 집단 (n=67)
내재적-도전감		2.91	2.31	3.13	2.57
내재적-즐거움		3.51	3.14	3.64	3.16
외재적-보상		3.58	3.05	2.63	2.16
외재적-타인지향		3.19	2.92	2.76	2.61

히 진로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동기성향의 군집분석

응답자들을 동기성향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표 6). 동기성향의 하위 척도인 내재적-도전감, 내재적-즐거움, 외재적-보상, 외재적-타인지향의 문항들의 평균을 구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군집수를 2~5개로 달리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4개의 군집으로 나누었을 때 특징이 뚜렷한 비교적 고른 분포의 군집으로 나뉘어졌다. 첫 번째 군집은 다른 군집들에 비하여 4개의 동기요인에 대하여 고르게 높은 집단으로 고 동기 집단으로 명명

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외재적 동기는 높고 내재적 동기는 낮은 집단으로 외재적 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으며, 세 번째 군집은 외재적 동기는 낮고 내재적 동기는 높은 집단으로 내재적 동기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군집은 내재적, 외재적 동기가 모두 낮은 저 동기 집단이었다.

3. 전공 만족도 및 동기성향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먼저 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공 만족도의 두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인 모

델은 $F=17.86(d.f=4, p<.001)$ 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R^2=.17$ 이었다. 두 가지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는 일반적 관심에 따른 전공 만족도($b=.17, t=2.11, p<.05$)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전공 만족도($b=.37, t=4.03, p<.001$) 모두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들 중 사회적 인식의 회귀계수값이 크고 유의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전공에 대한 일반적 관심보다는 사회적 인식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동기성향이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기성향군집을 요인으로 하고 전공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 만족도는 중간적인 진로 관련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기성향이 전공 만족도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 결과 동기성향에 따라 구분된 네 집단은 전공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 동기 집단과 내재적 동기 집단이 외재적 동기 집단과 저 동기 집단에 비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8).

고 동기 집단은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모두 높은 집단임을 고려할 때 보상이나 타인의 인정 등의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성향의 학생들 보다는 즐거움 또는 도전의식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성

향의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 높고 진로결정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재적 동기성향이 학교에서의 적응과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권순용, 양연숙, 2007; 문영주, 200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의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경향을 파악하고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전공 만족도 및 동기성향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의류학 전공 대학생들은 내용에 대한 관심이나 사회적 인식 면에서 전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으며 진로결정수준은 전공만족도보다 낮았으나 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하여 사회적 인식에 따른 전공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의류학 분야가 전통적으로 가정학 분야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여성적인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생들은 성별, 학년, 주관적 생활수준 등의 측면에서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의 진로로서 패션 비관련 직종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패션 관련 직종을 고려하는 학생들에 비하여 전공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으며, 진로결

<표 7> 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b	β	t	F	R ²
일반적 관심	.17	.16	2.11*	17.86***	.17
사회적 인식	.37	.30	4.03***		

* $p<.05$, *** $p<.001$

<표 8> 동기성향에 따른 전공 만족도 및 진로결정수준

특 성	군 집	고 동기 (n=63)	내재적 동기 (n=81)	외재적 동기 (n=71)	저 동기 (n=67)	F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일반적 관심		3.33(.51) B	3.32(.60) B	3.11(.51) A	3.10(.55) A	3.69*
사회적 인식		3.26(.47) B	3.35(.45) B	3.03(.51) A	3.10(.47) A	7.01***
진로결정수준		2.98(.61) B	3.08(.62) B	2.73(.52) A	2.81(.54) A	9.86***

* $p<.05$, *** $p<.001$

A<B; Duncan test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다른 문자로 표시함.

정수준도 낮았다. 즉, 전공에 만족을 못하는 경우 전공과 무관한 대안적 진로에 대하여 탐색하기는 하나 진로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여전히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에 대한 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적 관심보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류학 분야에 일반적인 관심이 높을수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류학 분야에 대한 인식이 좋다고 느낄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결정에 대하여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성향 또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군집분석을 통하여 동기성향을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을 때 내재적 동기가 높은 고동기 집단과 내재적 동기 집단이 내재적 동기가 낮은 저동기 집단과 외재적 동기 집단에 비하여 높은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수준을 보였다. 즉 외재적 보상이나 타인의 인정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로 동기화되는 학생들 보다는 내재적인 관심과 즐거움을 통하여 동기화되는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진로결정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의류학이라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 수준과 패션 관련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진로지도를 준비하는 교육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패션 분야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류학 분야는 여성적인 분야라는 사회적 인식은 남학생들이 전공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저해하는 요소로 보인다. 따라서 남학생들이 성역할 편견에 기반한 사회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자신의 흥미 및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 진로결정수준에 차이가 없었던 점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고학년 학생들이 보다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적 인식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효과가 내용에 대한 일반적 관심에 따른 전공 만족도의 효과보다 높았다. 학생들의 전공 관련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도움으로

써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진로결정에 좀 더 확신을 갖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공의 내용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전공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파악하여 그들이 대안적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류학이라는 전공에 대한 만족을 이끄는 개인적 또는 상황적 요인들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적 성격변인인 동기성향의 영향을 보았을 때 내재적 동기성향이 낮은 외재적 동기 집단 또는 저동기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 진로결정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집단의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만족도 또한 전반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내재적/외재적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달리 가지고 있는 성향이기도 하나,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특성이기도 하다(Amabile, 1983). 따라서 지속적인 동기 부여 상황을 통하여 학생들이 내재적인 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숙, 이은정. (200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1-22.
- 고향자. (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순용, 양연숙. (2007).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태, 학업동기, 가족기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115-129.
- 김명주. (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의식과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58, 19-39.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결정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상진, 김종걸. (2007). 경호 관련 학과 대학생의 전공 만족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53-63.
- 김창호. (2008). 경호학 전공 만족도와 진로의식 조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7, 91-107.
- 문영주. (2009).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학업동기와 학교적응관계에서 심리적 안녕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31-51.
- 박영신, 김의철. (2000). 경제 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한국심리학회지*, 6(1), 85-117.

- 오치선, 이복희. (2005).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변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3), 93-113.
- 이경아, 유나현, 이은경, 전주연, 이기학. (2004). 학습 성격 유형 및 전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07-121.
- 이성식. (2006). *여대생이 인식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결정수준의 인과모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형룡, 박슬기. (2010). 호별, 외식, 관광 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공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3(1), 79-105.
- 임용수. (1993). 전공 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교육발전연구*, 9, 107-129.
-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화와 개인인지변인 간의 관계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은경, 장은영, 이규혜. (2001). 의류학 관련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전공 만족요인: 구조적 모형분석. *한국의류학회지*, 25(9), 1614-1620.
- 최동선, 정철영. (2003). 대학생의 진로탐색행동과 동기요인 및 애착의 관계분석. *직업교육연구*, 22(1), 115-143.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대향, 임은미. (2004). 중고등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진로성숙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77-191.
- Amabile, T. M. (1983).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57-377.
- Amabile, T. M., Hill, K. G., Hennessey, B. A., & Tighe, E. M. (1994). The Work Preference Inventory: Assessing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al orient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50-967.
- Blustein, D. L.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al processes and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 345-357.
- Brown, C., Darden, E. E., Shelton, M. L., & Dipoto, M. C. (1999). Career exploration and self-efficacy of high school students: Are there urban/suburban differenc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7, 227-237.
- Browne, J. M. (2005). *Personality,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An examination of factors that impact the career decision of black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Howard University, Washington, DC.
- Edwards, J. E., & Waters, L. K. (1982). Involvement, ability,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s predictors of college attri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2, 1149-1152.
- Germeijs, V., & De Boeck, P. (2003). Career indecision: Three factors from decis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11-25.
- Graunke, S. S., & Woosley, S. A. (2005).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cademic success of college sophomores. *College Student Journal*, 39, 367-376.
- Guan, G., Shiye, M., Liu, J., & Yum, G. (2006, May).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major, academic performance, and congru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al Assessment, Singapore*. Retrieved October 5, 2010, from <http://www.iaea2006.seab.gov/conference/download/papers/Relationship%20between%20satisfaction%20with%20major,%20academic%20performance%20and%20congruence.pdf>.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Kenny, M. E., & Rice, K. G. (1995). Attachment to parents and adjustment in late adolescent college students: Current status, applications and future consider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s*, 23, 433-456.
- Kowalski, C. J. (1982). College dropouts: Some research findings.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9, 45-49.
- Logue, C. T., Lounsbury, J. W., Gupta, A., & Leong, F. T. L. (2007).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personality traits in relation to college major satisfaction of business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3(3), 269-295.
- Nauta, M. M. (2007). Asses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academic majo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4), 446-462.
- Savickas, M. L. (1984). Career maturity: The construct and its appraisal.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32, 222-231.
- Shim, S., & Morgan, G. A. (1990). Predicting students attitudes and satisfactions: Implications for strategic planning in higher educa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3), 29-38.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in practice* (pp. 338-363).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yler, D., & Small, J. M. (1990). Persistence of college transfer students. *Alberta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6, 181-188.